

# 조현일과 함께 하는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 상종가

대 시민 '소통의 장' 마련  
시민에게 듣고 정책 반영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하는 대(對) 시민 소통의 장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 가상종가다.

토크콘서트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28만 시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산에 대한 애정을 담은 시민 영상을 시작으로

로 조현일 시장이 직접 민선 8기 후반기 시장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보고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걸쳐 선정된 대표 상징물(CI) 기본형을 ICT 첨단산업 도시에 걸맞은 미디어 아트(아나몰픽)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께 최초 공개함으로써 달라진 경산의 위상과 시정 비전 실현 의지를 극적으로 연출했다.

조 시장은 시민보고에서 후반기 주요 시정 방향을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자유구

역의 혁신적인 새 모델 주도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 개통을 기점으로 수도권 수준의 지하철 인프라 구축안 제안 △시지 혼잡도로 개선 및 대구 안심-임당 간 광역도로 개설로 도시의 양적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흡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추진으로 기회를 찾아 모여드는 경산 만들기 등 더 나은 경산 미래 100년을 위해 또 다른 기적을 만들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각계각층 시민 100여 명과 함께 '30살의 경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합니다'란 주제로 시정 현안

과 후반기 비전에 대해 진솔한 토크콘서트를 이어갔다.

조 시장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시민 여러분들과 경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 매우 행복하다. 더 잘 살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 경산을 위해 1300명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는 주요 시정 현안을 시민과 공유하는 민선 8기 대표 시민 소통 채널로서 대시민 접점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 2025 APEC 개최지 선정 초읽기...승리 깃발 꽂는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 APEC 정상회의 최종개최지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결정 2025 APEC 개최 파급 효과 영남권중심 경주 단연 최고 경주시 막판 스퍼트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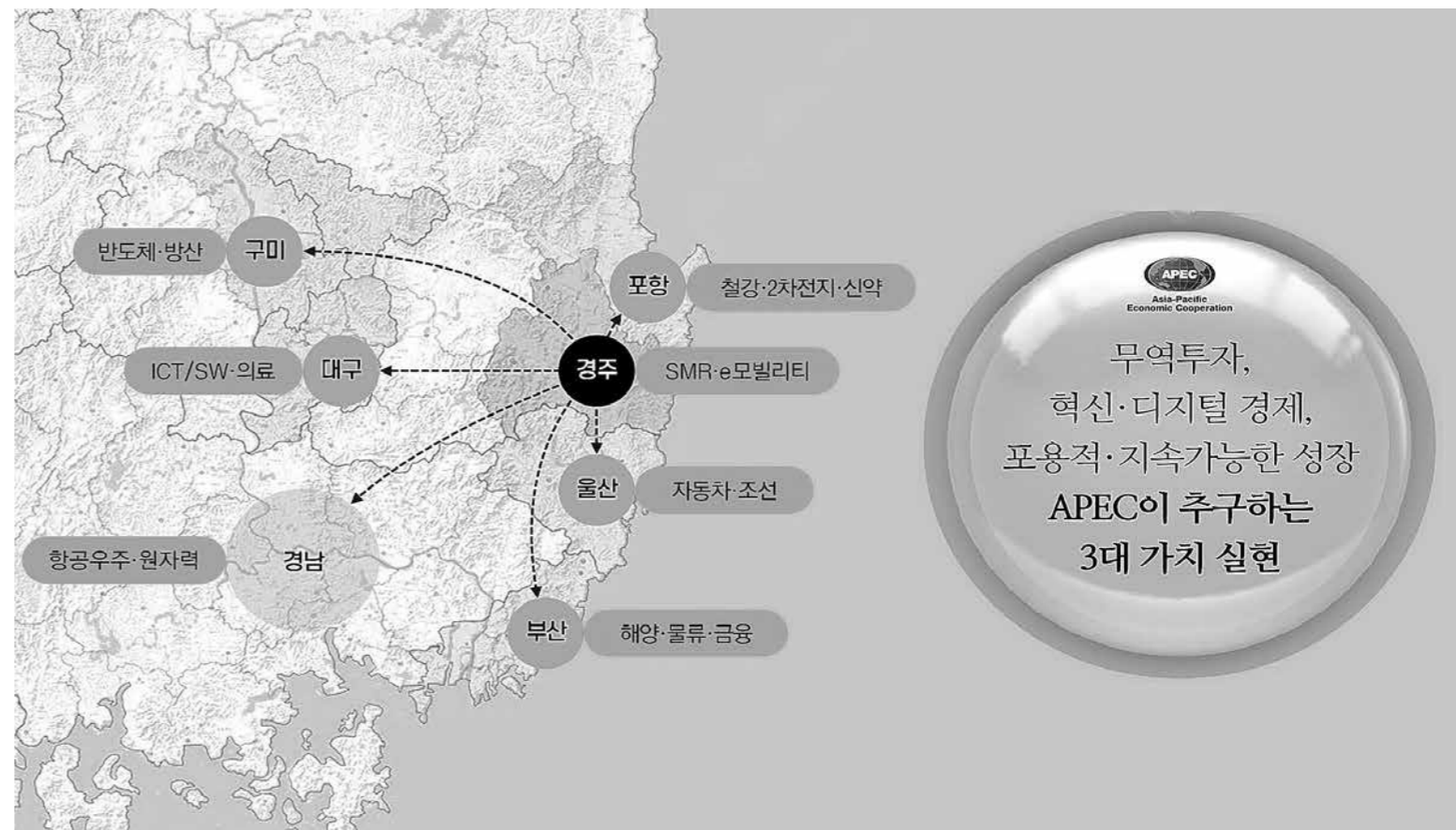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도시 선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종 개최지가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2025 APEC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주 중 2025 APEC 개최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연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는 △경주 △인천 △세주가 뛰어들어 정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승부를 하고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때문에 경주시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APEC 경주 유치, 마지막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간부들에게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경주가 경호, 문화, 공항 접근성, 안전성 등 숙박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앞선다"며 "숙박도 다른 지역이 100점이려면 경주는 90점 정도로 크게 뒤처지지 않는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면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영남권 국회의원 58명도 경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 지지"에 힘을 보탤다. 경주에 지역구를 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 전원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명 등 58명이 서명한 '경주 유치 지지성명서'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지"라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손잡고 △역사·문화·관광 도시 △영남권 주요 산업현장 사찰이 가능한 산업 중심도시 △경호·안전에 최적화된 도시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등 강점을 내세워 유치 당위성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우리의 외교, 경제, 문화적 역량을 한껏 발휘해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이자 국가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다. 신라 천년 역사를 품고 있으며 한반도 최초 통일 문화 도시로서 국제 교류와 K컬처의 출발지다. 불국사·석굴암 등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품격이 깊어,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경주는 유치 3파전을 벌이는 도시 중 유일한

지방 중소도시이다. 하지만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우가 풍부하다. 국제컨벤션협회(ICC)가 밝힌 국내 기초단체 중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도 경주다.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성공 DNA의 근원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명분과 목적뿐만 아니라 파급범위와 효과면에서도 최적의 도시로 손꼽힌다. 경주는 APEC 개최 후보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실익이 있다고 유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이달 초 열린 후보도시 유치설명회에서도 K컬처의 뿌리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세계와 공유할 가장 한국적인 도시 면모와 함께 영남권

경제의 중심도시로서 개최도시만의 성과나 발전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은 물론, 영남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경주와 불과 1시간 거리 내에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 대도시들이 산재해 있다. 인접한 울산(조선·자동차)과 포항(철강·2차전지), 구미(반도체·방산), 대구(ICT/SW·의료), 부산(물류·금융), 경남(항공우주·원자력) 등 영남권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에 경주가 있다. 경주만 보더라도 한수원 본사와 6기의 원전과 방폐장, 혁신원자력연구단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을 비롯한 원전산업의 전 주기가 집적된 우리나라 제1의 원자력에너지도시로서 세계적 정책 이슈인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경주는 자동차 관련기업이 경북 전체의 65%인 1200곳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핵심도시다. 최근 e-모빌리티연구단지 내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와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 가공 센터 준공을 비롯해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리허브센터 조성을 앞두고 있는 등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혁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경주와 영남권 전반의 첨단 혁신산업을 연계할 경우,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등 APEC이 추구하는 3대 가치를 실현한다. APEC 회원국과 대한민국 경제기적을 이끌어 온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혁신기술의 동반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넓은 지역에 최대의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주시장은 "경주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경험과 잠재력, 혁신 경제의 모범 모델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윤용찬 기자





### 군위군의회 행감특위, 현안 사업 현장 방문

군위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철식, 간사 최규중) 위원들은 군위군 환경관리

센터 현장, 소보면 문화나눔 거점공간 건립 현장 등 12개소의 사업장을 찾아 당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각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위원들은 군민이 시설물 이용 시 불편을 겪지 않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현안사업 건의

남부거대경제권 형성 위한 TK신공항 건설과 접근교통망 확충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위한 대구산업선 철도 등 철도·도로 건설  
미래첨단산업 육성 위한 국가디지털혁신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접근교통망, 물류·교통 인프라, 5대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업 9건에 대해 논의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접근교통망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원)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신공항철도(총 2조 6,485억 원) 및 달빛철도(총 4조 5,158억 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거대경제권이 형성돼 수도권 집중

형 국토구조를 변화시켜 국토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류·교통 인프라 사업은 대구 서남부 지역에 철도노선을 공급하기 위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총 1조 5,511억 원), 대구 동·북부 지역에 도시철도 공급을 위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총 7,756억 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인근의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상화로 입체화 사업(총 3,904억 원)으로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대구의 물류흐름이 강화됨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편의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5대 미래첨단산업 육성 사업은 대구를 관교에

바탕가는 디지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총 9,226억 원), 국내 로봡산업 현안인 자체실증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총 1,998억 원), 비수도권 UAM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UAM핵심부품 인증지원체계 구축(총 380억 원)으로 이 사업들을 통해 대구 산업구조 개편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건의 국비사업 건의 외에도 국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복합시설 건립사업\*(가칭 문화예술허브) 사업부지를 황경북도청(현대구시청) 후적지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화예술허브 부지변경의 문제점이었던 중앙정부와 소통 장애요인을 해소했으니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접근교통망을 확충하고 물류·교통인프라 구축과 5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를 거대남부경제권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러한 대구 대개조작업의 마침표를 대구경북통합으로 찍어 수도권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수성구치매안심센터, 치매 걱정 없는 사회로...

#### 치매안심약국 17곳 신규 지정



수성구치매안심센터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약국 17개소를 치매안심약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성구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2021년부터 시작한 '대구형 치매안심약국 지정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74개 약국을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하며 촘촘한 치매안심망을 구축하고 있다. 치매안심약국의 주요 활동은 △치매 관련 정보제공 및 복약 지도 △배회 및 실종 어르신 발

견 시 신속한 신고와 보호 △치매조기검진을 비롯한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 등이다. 센터는 지난 12일 신규로 지정된 세왕약국을 포함한 5개소에 현판 전달을 완료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 약국을 늘려갈 방침이다.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신청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약국 내 모든 종사자가 온라인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약국은 수성구치매안심센터(☎053-666-3181)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환 수성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이 이용하기 편한 약국수를 늘려져 지역사회 치매안심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행복한 치매친화사회를 위해 수성구치매안심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 대구시 공무원 중견리더과정 초청특강

#### '군위는 복권이다' 주제로 군위의 비전과 정체성 공유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8일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 중견 실무리더과정 교육생 69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군위군 대구편입 1주년을 기해 '군위는 복권이다'라는 주제로 군위군의 가능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군위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대구편입 1주년이 되면서 대구와 하나의 공동체가 된 군위군에 대해 대구시 공직자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위를 바라보는 관점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TK신공항과 공간개발계획 등 계획 중인 대구모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역사 속 유래에서 기원한 군사군(軍)에 위엄 위(威)자를 쓰는 '군'의 위엄이 당당하다는 뜻의 군위 지명에서 TK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상황을 역사의 평행이론으로 흥미롭게 제시하여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모 장기발전계획과 더불어 군위에서 자체 시행 중인 핵심시책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는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정책과 한 아이 당 최대 6,250만원이 지원되는 과격적인 육아보육 지원 그리고 아이의 성장과정에 맞춘 아이즈아센터와 아이사랑키움터, 청소년가운누리관 등 '군위에서 낳으면 군위에서 책임진다'는 군위

만의 특화교육시책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신공항 시대를 대비하여 레저와 관광, 휴양이 집결된 복합레저휴양단지과 새로운 개념의 임대형 타운하우스 조성계획을 언급하면서 누구나 새롭게 인생을 '리셋팅'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군위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군위가 대구경북의 한 뿌리 상생의 신호탄이 되면서 대구광역시와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시로서 경쟁력과 희망을 갖춘 대한민국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위가 대구를 '리부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 강조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군위를 '복권'에 비유하며, 앞으로 군위에서 펼쳐질 상상 이상의 역사에 대구시 공직자들의 응원도 동참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 대구 - 현대엘리베이터(주), 'K-2 후적지 UAM 버티포트 구축' 위한 협약 체결

#### 'K-2 후적지 도심항공 교통버티포트 구축' 협력

대구시는 19일 산적청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주)(대표 조재천)와 'K-2 후적지 및 TK신공항 등 주요거점 연계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주차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국내 승강기 신규 설치 17년 연속 1위, 국내 승강기 유지 관리 9년 연속 1위,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승강기 업계 1위 기업이다. 또한 미래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를 신사업으로 선정하고, 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UAM 버티포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최근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도심내 공간 제약 해소를 줄방안으로 통합관제 건축물도명

명한 'H-PORT'를 공개하고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 예정이다. 대구시는 UAM을 민선 8기 5대 미래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K-2 후적지 내에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는 UAM, KTX, 도시철도, 수상교통, 고속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총괄하는 교통환승과 소양·면세점·문화전시공간장 등을 품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UAM 버티포트가 포함된 복합환승센터는 부지면적 약 7만 3천㎡에 지상 6층, 지하 5층의 규모(추정사업비 약 8천억 원)로 구상 중에 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 SPC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현대엘리베이터(주)와 함께 K-2 후적지에 UAM 버티포트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갈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대엘리베이터와의 이번 협약으로 TK신공항과 K-2 후적지를 비롯한 인접도시 주요거점을 UAM으로 연결해 그야말로 하늘길을 열어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엘리베이터가 UAM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달성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 7월부터 본격적 시행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

영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대상자는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부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보조기구를 구매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 사로나 낚싯대 설치하는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하는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낚시 휠체어를 새로 구입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국 8개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동구청, 불우이웃 돕기 사랑나누기 잇따라...

동구에서 불우이웃 돕기 사랑나누기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동구지회는 지난 18일, 회원 30여 명과 함께 팔공정문화센터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이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창털림주식회사에서 550만원 상당의 여름용 이불 100채를 후원받아 진행됐으며, 회원들은 관내 취약계층 100여 세대에 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김희목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장은 “건강에 유의하길 바라며, 여름이 다가오면 이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소외이웃을 살피는 동구사회발전이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4



## 대구교통공사-동양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8일 동양대학교에서 김기혁 사장,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 등 양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과 공기업 간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 및 기술의 정보교류 △인적·물적 교류 △산학 공동연구 등을 통해 철도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 상

생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도시철도와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종합교통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양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발전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계명문화대, 근로자 대상 힐링·여가 프로그램 인기

## 이은진 HiVE사업단장 성서산업단지 재직자 힐링 기회 되길 바래

계명문화대학교 HiVE사업단이 사업 3차년도 를 맞아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힐링·여가 프 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HiVE사업단은 올해 사업 컨소시엄 기관인 달 서구(일자리지원과)의 제안에 따라 대구성서산

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달서구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힐링·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HiVE사업단은 거버넌스 기관인 대구성서산 업단지관리공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근로 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도시락 음 령 공연, △직무적성검사(테니지먼트) 강점 위 크숍, △행동유형분석(DISC)을 통한 조직 소통 프로그램, △서로 다른 우리 함께 성장하기 feat. 팀빌딩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해 나가고 있다.

최근 대구성서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화웅 섬유, 데코웬텍스타일, 에스제이테크, 디케이테크, ㈜니즈, ㈜메가솔루션, 현민지비티(주) 총 7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시 락음력 공연'을 6~9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기업 조직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해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고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은진 HiVE사업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성서산업단지 재직자들이 힐링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힐링·여가 프로그램을 제공은 물론,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살기 좋은 달서구 만들기에 계명문화대 학교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달서구와 컨소시엄을 통해 2022년 HiVE사업에 선정돼 약 55억원의 국고 를 지원받아 3년간 지역 정주 청년인재 양성과 다양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정주 청년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HiVE사업 지역특화분야 연계 학과인 기계과, 의료기기과, 커피문화경영과, 제과제빵과, 유아 교육과, 작업치료과 등 6개에서 신입생을 모집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장학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경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영양시의회

청도군의회

## 경산·영주·영양·청도의회 정례회 폐회

### 경산, 14건 안건 원안가결 영주, 11건 안건 심사·의결 영양, 3건 안건 심의·의결 청도, 행정사무감사 완료

경산·영주·영양·청도 의회 하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마무리됐다.

#### ■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주민발의 조례로 청구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권중석 시의원은 경산시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의원들이 제시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우리 경산이 더 큰 행복의 도시, 새로운 경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가 지난 7~18일(화)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 의결제시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682억 3893만 7000원이다.

세입결산액은 1조 2964억 373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1억 9841만원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액은 9961억 55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8.5%를 지출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심사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최소화가 되어야 함에도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 예산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계획 지표 및 측정산식 미흡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결산서 작성 시 지방세 지출 보고서의 경우 2023년 결산자료가 아닌 추계자료를 제출, 결산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김 예결위원장은 "기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차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심재연 영주시의회의장은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양군의회

영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5765억 4010만 9112원이다.

세입결산액은 6097억 8990만 9636원, 세출결산액은 4289억 532만 6219원, 결산상 잉여금

은 1808억 8458만 3417원이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구임 군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의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하고 보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석현 의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제9대 전반기 의회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 분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온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청도군의회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구봉)는 19일 강평을 끝으로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 기관 등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1~9일까지 9일간 열린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주요 추진사업 사전 제출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제점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순세계영여금 최소화 등 예산관리 철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각종 지원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도도환경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망 확충 △농업인 지원 확대 등을 주조했다.

김구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청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조여은 기자

전성기 기자

조미경 기자

권윤동 기자

## 아 어찌 잊으려 그날이 함성을... 영웅의 軍帽

### 상주시, 우리나라 처음 대한민국 군인모자 전시



2024 상주박물관·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특별기획전 '군모(軍帽), 국군용사의 명예' 전시가 지난 14일 개막했다.

전시는 상주박물관이 주관하고 상주시 사회복지와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에서 전시되는 특별기획전이다.

오는 10월 13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군인모자를 모아 전시한다.

육·해·공·해병대로 구분, 각 군별 특색있는

모자와 6·25전쟁, 베트남전쟁, 국군의 해외파병 등의 이야기를 담은 12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전시유물은 육군박물관·해군사관학교 박물관·국립공군박물관·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유해발굴감식단 등 국방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여했다.

실제 사용된 국군용사의 모자들이다. 어린이 관람객의 눈에 맞춰 레고를 이용한 전투 디오라마를 전시했다.

전시장 중앙에는 '송고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백합과 철모를 활용한 특별조형물을 제작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호국선열의 송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했다.

윤호필 상주박물관장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자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군인모자와 함께 뜻깊은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가 호국의 도시 '상주'를 더욱 빛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 道, 22일 4개 권역별로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9급 행정직 일반 387명 모집 4279명 응시 11.1대 1 경쟁률

경북도가 오는 22일 올해의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길 경북 지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2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9급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31개 직류 1226명 선반에 9963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8.1대 1을 보였다.

지난해 1380명 모집에 1만 1411명이 응시해 8.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올해 경주시와 안동시에서 각 1명씩 선발하는 방호 직류에는 73명이 응시해 36.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9급 행정직(일반)은 387명 모집에 4279명이 응시해 11.1대 1의 경

쟁률을 보였다.

연령대는 10대 61명(0.6%), 20대 4980명(50%), 30대 3596명(36.1%), 40대 1161명(11.7%), 50대 165명(1.7%)이며, 응시자 중 대학 졸업 이후인 27세 이상이 7081명(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는 고졸의 공직 진출 확대도 조기 사회진출, 일찍 결혼, 일찍 아이를 낳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율 증진을 위해 인제 수습직원 선반제도의 일반고 확대 및 고졸의 공무원 임용시험 기산점 부여 등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시험은 포함권역에서는 포함제출 등 7개 학교, 경주권역에서는 경주여중 등 4개 학교, 안동 권역에서는 풍천중 등 4개 학교, 구미권역에서는 금오공고 등 6개 학교를 포함한 4개 권역 21개 시험장, 473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지난 17일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당일 필요한 준비물, 입실 가능 시간 등을 포함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김성용 기자

## '평균 연령 79세' 막내가 65세 초등학교?...노인 신입생 폐교 막아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오지 마을에 있는 증산초는 전교생 22명 중 15명이 65세 이상 노인들

이다. 1980년대 전교생이 600명이나 되던 이 학교

가 최근 폐교 위기에 놓였다.

학생이 15명 이하로 줄면 학교는 분교나 폐교 대상이 되는데 올해 입학생이 2명뿐이고 전교생이 7명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조미경 기자



경주시 양남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지역 내 어르신 1000여 명을 모시고 해수 온천랜드 주차장 일원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최덕규 도의원, 주동열 시의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단체장 및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실진일 양남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경로잔치를 이장협의회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어르신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경주문화관1918 피크닉 페스타 29일 막올라

옛 경주역서 공연·먹거리·공간...  
관람객 오감 자극 다양한 행사

'경주문화관1918 피크닉 페스타'가 오는 29일 막 오른다.

행사는 29,30일 이틀간 '경주문화관1918'에서 열리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및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축제다.

'경주문화관1918'은 폐역이 된 옛 경주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 곳으로 축제 기간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의 오감을 △공연 △공간 연출 △먹거리 등 세가지 분야로 만족시킬 예정이다.

공연 분야는 △콘서트 스테이지와 △프린지 스테이지로 나눠 열린다.

이 가운데 콘서트 스테이지는 유다빈 밴드, 로맨틱펀치 등 국내 인기 인디밴드 6팀을 초청해 하루 3회씩 이틀간 총 6회의 공연이 열린다.

또 프린지 스테이지는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국내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거리에살림 8팀을 초청해 하루 4회씩

이틀간 8회의 공연이 열린다.

공간연출 분야는 △1918 쉼터 △1918 놀이터로 나눠 이틀간 낮 1시부터 운영한다.

1918 쉼터는 더운 날씨를 감안해 쿨링 안개존 및 감성 그늘막을 등을 공연 관람 공간으로 이용해 관람객의 무더위를 날려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공연장 240m 구간에 안개 분사 노즐을 설치해 관람객의 무더위를 날려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1918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 가족동반 관람객들이 행사장에 머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먹거리 분야는 △아이스크림 △담강정 △담꼬치 △회오리감자 △탕후루 등 총 5대의 푸드 트럭이 운영된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세대들의 도심 유입으로 도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문화관1918 피크닉 페스타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

긴급 조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농가 주변 일제 소독 완료...



경주시가 농가주변 소독 및 질병 매개체(쇠파리)를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15일 영천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15~17일까지 양돈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4곳의 역학농장은 다음달 4일까지 추가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역학농장에 대해 진행된 긴급재향 및 임상결과에 이상없음으로 관명났다.

거점소독시설 2곳(천북, 울동)에 대해서는 운영을 강화, 15개 반의 공동방제단을 비롯한 2개 반의 자체 소독차량을 동원해 양돈농가 주변 일제소독을 완료했다.

ASF 발생 당일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신고요령 등의 내용으로 긴급 문자 메시지 1770건을 발송했다.

시는 선제적 조치뿐만 아니라 주기적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ASF 전문방제단을 신설해 지역 양돈농가 59

호에 대한 농가별 방역을 정기적으로 진행한 다. 울타리 보강, 차량소독기 점검 등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멧돼지가 농장에 접근 못하도록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농장별 맞춤형 방역 컨설팅을 한다.

ASF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소독약품 3000L, 생석회 1100포, 멧돼지 기피제 1000포를 농가에 긴급 배부한다.

지역농장에서는 ASF 의심축 발생 시 경주시가 축방역상황실(054-779-6818)로 신고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뮤직 콘서트 아름다운 하모니 선물

시민과 예술인의 화합의 장...  
제51회 경주예총 예술제 개막



주낙영 경주시장이 제51회 경주예총 예술제 개막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주지역 예술인들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경주 예총 예술제'가 오는 23일까지 6일간 펼쳐진다.

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이번 예술제는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교류·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제는 지난 18일 예술의전당에서 작품 전

시와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월정교 상설무대 등지에서 진행된다.

먼저 음악협회 주관으로 지난 18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그리운 마음,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의 뮤직 콘서트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물했다.

국악협회는 19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신라소리, 춤과 어우러지다'라는 주제로 장월중선류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연극협회는 21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복지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주민들의 우려곡절 스토리를 보여준다.

연예예술인협회는 22일 월정교 상설무대에서 하이난 사랑(최은성), 영일만 친구, The Victory, 노란셔츠의사나이(제이스김, 이동혁, 김민재)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으로 즐거움을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화예술의 본질은 창작과 향유에 있는 만큼, 공감과 확산을 이루는 예술제 본연의 의미를 살려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예술 축제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며 "행사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 제공

## 박목월 시인 미공개 작품 전시회 열려

박목월 시인 노트 육필  
시 원본 스캔본 등 전시

경주시는 박목월 시인의 미공개 작품을 특별 전시회 형식을 빌려 최초 공개한 동리목월문학관이 이번달부터 해당 전시회를 상설 전시회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리목월문학관은 지난달 14~28일까지 전국 최초로 박목월 선생의 미발표 시 9편의 원본 스

캔본을 공개한 바 있다.

상설전시회 전환 조치는 문학계와 대중의 큰 관심에 힘입은 것으로, 추가로 1편의 미발표작을 더해 총 10편의 작품이 상설 전시된다.

미발표작은 물론 박목월 시인의 노트 육필 시 원본 스캔본 및 작품 해설을 제공한다.

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회가 발간하고 플랫폼 '피카펜'에서 열람 가능한 박목월 미발표 육필 시 북각본 종이책 총 10권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되는 총 10편의 작품은 △수산보요이 △

구두 △우감, 이수 △밤정거장 △어느 소녀에게 △용설란 △제주향, 3 △수놓방울 열두형제 △시범 △결의의 노래 등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결의의 노래'는 조국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연작시로, 서정 시인으로만 알려졌던 박목월 선생의 새로운 문학적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상설 전시회를 통해 박목월 시인의 미공개 작품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됐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동리목월문학관의 콘텐츠 다양화와 박목월 시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4000억 투자

## 27회 국무회의 예타면제 의결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가(조성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국가산단의 예타면제는(국가정책사업으로의 확정)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산단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의결됐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임을 국가가 인정한 결과이다.

군은 예타가 면제됨(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산단 조성이 한 걸음 빨라지게 됐다.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 산단 조성계획과 더불어 산단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단 진입도로 4차선 개설 등 산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축면면 후정리 일대)는 46만평 규모로 약 4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향후 울진군의 원전 10기에서 생산되는 무탄소 전기(2GW)를 활용, 연간 30만톤의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한 수소 산업의 전주기 업체가 입주한다.

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울진산단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 협의를 했다.

현재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GS에너지, 삼성E&A,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DL E&C, BHL, SKD&D, 삼성물산이 입주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 전력의 국가산단 직접 공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한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릉군,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울릉치매안심센터는 '2024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지난18~9월 26일까지 60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2(화·목) 현포진료소에서 운영한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에서는 치매관리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및 건강증진 유지·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치매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한권 울릉군은 "치매라는 질병은 질병 자체보다 치매라는 이유로 이웃으로부터 쇠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예쁜치매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순병복 울진군수가 건의한 울진산단에서 생산되는 수소 운송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운송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 번에 더 많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송할 수 있는 액체수소 도입 및 출하를 위한 해상터미널 구축, 육로 운송을 위한 죽변역에서 산단까지 철로 연결, 국도 36호선 확장, 고속도로 건설, 수소 운송용 파이프라인 건

설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울진군은 산단내 입주예정 기업과 함께 울진산단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물론 첨단전략산업에 수소를 추가, 울진 산단을 첨단전략 산업수소특화단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되면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보, R&D 정바·확충, 인력양성, 추진체계에 대한 협력적 정비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첨단산업 발전의 다양성 확보, 노동시장의 질적 구조고도화, 특성화고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예타면제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물론이고 울진 발전으로 향하는 길이 한층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은 만큼 국가산단의 본격적인 운영까지 최선을 다한다. 주민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 였다.

이경수 기자



## 영덕군, 상반기 자동차세 15억여 원 부과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1만 4,467건 15억 3,400만 원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중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일까지다.



## 청송읍 특화사업 추진

청송읍 이웃사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부터 '냉장고를 부탁해'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홀몸노인 8가구를 선정, 냉장고 내부의 청소는 물론, 밀반찬과 요리 재료 등을 지원한다.



## 제5회 영양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영양군은 18일 영양삼지파크골프장에서 제5회 영양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영양군민 및 영양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장년부(남·여) 및 일반부(남·여)로 나뉘어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를 했다.

## 영덕군, 2024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주요 안전 이슈 민·관·경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영덕군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올해 상반기 정기 회의를 지난 18일 영덕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사회적 안전망과 치안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영덕군과 관내 여러 기관·단체들이 협력하는 연합체다.

회의엔 위원장인 김광열 영덕군수, 부위원장인 해원 영덕경찰서장, 오범식 영덕소방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관계 단체장 14명이 참석했다.

이용교 경찰발전협의회장, 김상석 보안협력위원회장, 장성광 자율방범연합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협의회는 △강력범죄 예방책 △절도 범죄 예방책 △울진해안경찰서장 당연직 위원 구성 △인



김광열 영덕군수가 2024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주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제공)

어선 사고 예방책 △재난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책 등 생활 속 안전을 위한 총 5개의 안전에 대해 민·관·경이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안해원 영덕경찰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관광 명소인 지역의 특성 상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협의회가 나서서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 가족 사랑 안전한 울릉 만들어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울릉군-울릉경찰서 업무협약

울릉보건의료원이 울릉경찰서와 손잡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

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탓이다.

울릉보건의료원은 가정폭력·학대 피해자 임시 보호·치료 전용 입원실 확보 및 긴급 의료비 일부 감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울릉경찰서는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범죄신고·피해 관련 도움 요청 시 전담 경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 의료인 보호 신속 대응 및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윤환 기자

### 청송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철통방역

청송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양돈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지난 15일 인접 지역인 영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군은 지난 15일~17일 까지 돼지농장 등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청송영양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2대를 활용, 양돈농장 간·출입로에 대해 일제소독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출입차량과 관련, 역학 관계가 있는 양돈농장에 대해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했다.

윤병문 기자

올 여름, 특별한 즐거움

# 일상탈출 울릉도 여행

Have a Special Time in Ulleung Island

에메랄드 울릉도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성주군, 재난 상황 대비  
부음·면장 회의 개최

성주군에서는 재난 상황대비 마을순찰대 관련 부음·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4년 여름철 재난(사화, 자연 등) 대비 마을순찰대 주요임무인 재난 상황 예찰, 초동보고 등 역할 수행, 위험요인 발견시 해당 읍·면사무소 연락하는 등 행동요령과 운영관련 내용을 교육했다.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마을순찰대의 본연의 임무를 숙지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24년 여름철 기상전망을 미리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허윤홍 성주 부군수는 "읍면별 마을순찰대의 역량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성주 만들기에 읍·면에서 많은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재훈 기자



영주, '찾아가는 공연학교-  
텐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영주시는 19일부터 관내 중·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영주 미래교육지구 신규사업 '찾아가는 공연학교-텐동어미 화전놀이' 공연을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영주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을 연계한 예술·문화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역문화이해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 중 찾아가는 공연학교 사업은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지역문화를 통한 심포가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9일 대영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영광중학교, 7월에는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와 영

의성군, 글로벌 세포배양식품 산업 육성 MOU

싱가포르에서 경북테크노파크, 아시아·태평양 세포배양협회와 협약 참여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 기대

의성군이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포배양식품 산업 육성에 힘쓴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세포배양협회(APAC-SCA), 경북테크노파크와 세포배양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 의성군 철과리(의성 바이오파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지난 5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후 세포배양식품 규제 관련 기술 협업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아시아·태평양 세포배양협회(대표 피터 유, Peter Yu)는 지난 2022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단체로 세포배양식품 관련 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10개사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된 세포배양식품 협회이다. 협회 회원사로 활동하는 기업에는 이번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인 ㈜다나그린, ㈜씨위드도 포함돼 있다.

협약식에서 군은 아시아-태평양 세포배양협회와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 총괄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식품 안전, 효능, 품질에 대한 규제 관련 기술 협업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규제 관련 노하우 및 최신 정보에 대한 지원 및 협업 △안전한 세포배양식품 인식을 위한 문서 공동개발 등 세포배양산업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지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며 "세포배양

식품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의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K-water 보현산댐, 홍수피해 없는 2024년 만든다

2분기 민관합동 '담운영 소통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지사는 지난 18일 보현산댐 하류 지자체 영천시, 경산시 및 주민대표와 함께 2분기 담운영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담운영 소통회의는 지난 '20년 전국적인 홍수피해 발생이후 정부 홍수피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1년부터 분기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담 운영 현황과 전망 공유 및 담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차 회의에 이어 '24년 여름철 홍수기를 목전에 앞둔 즈음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홍수기 대비 준비현황, 담운영 계획 공유 및 홍수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홍수기

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못했다.

보현산댐지사에 따르면 특히, 올해 보현산댐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예년의 150%인 1480mm의 많은 강우로 댐수위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엘니노 영향으로 폭우 등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댐의 홍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6월 수위 저하를 위한 증기방류, 홍수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자체 협조 요청 등 홍수기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민석 보현산댐지사는 "담운영 소통회의를 비롯해 그간 지역사회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홍수피해 저감 및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마무리

산업건설위원회-결산안 승인 및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안전 심사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17일 마지막

날에는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심사가 간동안 집행부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제언들이 이어졌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제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 동안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덕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전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

영천시보건소는 19일 영천노인복지센터와 민·관 협력으로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보건복지단체와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두 기관은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치매극복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영천노인복지센터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서부권역(청통, 신녕, 화산, 화북, 화남, 서부동) 노인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 65명을 치매 파트너로 양성할 계획이다.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4년 홀몸 어르신 치매 세이프 존 사업'은 영천시 치매안심센터, 영천노인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이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서부권역 홀몸 어르신 13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 프로그램 '토타트닥터 기억 공부방'



8회기 운영 후 사후 검진을 통해 맞춤형 지역 자원 연계까지는 스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홀몸 어르신 치매 세이프 존' 사업 뿐 아니라 기관 간 치매 극복,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다양한 지역 내 기관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해 치매 건강 도시 영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지역 농특산물 활용  
밀키트 개발 사업 본격 시행

고령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외식업체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밀키트 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밀키트 메뉴 기획 및 마케팅 기법 등의 기본교육(20시간)과 밀키

트 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 등 유망 교육 등의 심화교육(60시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총 80시간의 교육을 통해 고령군의 대표적 밀키트 식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키트 개발을 희망하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사업계획 수립과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 선호 밀키트 제작 희망 업체 4개소를 선발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인 밀키트 메뉴 개발 컨설팅 수업이 진행 중이다.

배영백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도전하라,  
경험하라!

**문화가 대세다!**

#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입학상담

053)589-7800



계명문화대학교  
KEIMYUNG COLLEGE UNIVERSITY

- 간호·보건계열** 간호학과(4년제) | 보건행정과(3년제) | 언어치료과(3년제) | 응급구조과(3년제) | 의료재활과(3년제) | 작업치료과(3년제) | 치위생과(3년제)
- 디자인(콘텐츠)계열**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 타투디자인전공) | 시각디자인과 | 영상·애니메이션학부(영상전공 / 애니메이션전공) | 웹툰과 | 패션디자인·쇼핑몰과 | 플라워·가드닝과
- 반려동물계열** 반려동물보건과 | 펫토타케어과
- 뷰티계열** 기업브랜드학부 오무선뷰티전공 | 네일아트디자인과 | 메이크업디자인과 | 뷰티스킨테라피과 | 헤어디자인과
- 스마트공학계열** 건축인테리어과 | 기계과 | 디지털전자과 | 소방환경안전과 | 의료기기과 | 컴퓨터과
- 식품·외식·조리계열** 식품영양학부(식품영양전공 / 펫푸드영양전공) | 외식창업과 | 제과제빵과 | 조리마이스터과
- 음악·스포츠계열** 공연음악학부(연기뮤지컬전공 / 공연음악전공) | 생활체육학부(생활체육전공 / 스포츠재활전공) | 태권도시범공연과
- 휴먼·복지서비스계열** SNS마케팅과 | 경찰행정과 | 사회복지상담과 | 유아교육과(3년제) | 한국어문화과 | 항공여행서비스과 | 해외서비스경영과 | 호텔관광서비스과 | 회계정보과

- |                           |    |  |
|---------------------------|----|--|
| 성인학습자<br>모집학과<br>(만25세이상) | 주간 | 골프·피트니스과   공연음악학부   국제협력기술선교과   뷰티스킨테라피과   슬로우푸드조리과   심리상담케어과   커피문화경영과      |
|                           | 야간 | SNS마케팅과   금융부동산과   사회복지상담과   식품영양학부(식품영양전공)   외식창업과   유아교육과(3년제)   인테리어기술창업과 |